철의 무게 4분의 1·강도 10배·탄성 7배 '미래 소재의 쌀'

효성, 탄소섬유산업 1조2000억 투자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서 2020년까지 집중육성 계획 발표

박대통령 "청와대 선물은 탄소섬유제품으로 할 것" 화답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주시 덕진구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 조현상 산업자재PG장(왼쪽)으로부터 20개 강소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효성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효성 제공〉

첨단소재기업 효성이 '미래 소재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 사업에 2020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효성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맞춰 탄소섬유 사업 중장기 전략을 공개하고, 현재 연간 2000t 가량을 생산중인 탄소섬유를 2020년까지 지금의 7배 규모인 1만4000t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탄소섬유는 원사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과 비교하면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에 달한다. 한마디로 철보다 가벼우면서 더 강하다는 뜻이다. 내부식성과 전도성, 내열성도 높아 철을 대체해 모든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소재이다.

항공기 1·2차 구조물, 전투기·미사일 등 방위산업, 자동차 외장재(선루프·후드·도어)와 섀시, 공기 없는 타이어, 풍력 터빈 블레이드, 수소탱크(연료전지차), 건축용 빔 선박 소재 등은 물론 골프채, 서핑보드 등에도 두루 쓰인다. 인체적합성이 뛰어나 인공장기 소재로도 연구 중이다.

효성은 그동안 탄소섬유 사업에 2000억원을 투자했다. 탄소섬유 세계시장은 현재 20억 달러 규모이지만, 연평균 12% 성장해 2030년에는 1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은 2020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의 직접 고용효과로 1000명,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해 6000명에 달하는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직접 매출액 3조원, 지역 매출액은 10조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효성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벤처창업 펀드에 200억원, 탄소밸리 매칭펀드(전북도와 공동)에 10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IT지원에 120억원, 창업보육센터에 30억원 등 총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효성과 전북도는 앞으로 탄소 기술을 세계 톱 3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탄소 관련 혁신 중소기업을 100곳 이상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전북 혁신센터는 탄소를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한 효성은 시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집중지원하게 된다.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지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통문화와 농생명, 탄소산업 대도약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 구현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효성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수천 년간 제조업 기본 소재였던 철을 대체할 '미래산업의 쌀'로 주목받고 있다"며 "효성의 역량이 총결집될 창업보육센터는 탄소소재 분야의 히든챔피언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종료후 혁신센터를 둘러본 박 대통령은 전시된 탄소섬유 소재 사무용품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선물할 때 탄소섬유로 만든 것을…"이라고 언급했다. 또 동행한 효성 임원이 탄소섬유 핸드백을 선물로 건네자 "철을 대신할 매우 유용한 것이네요. 가볍고 좋아서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겠네요"라고 화답했고,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기타를 들고 직접 쳐보기도 했다.

/임동률기자lexian@kwangju.co.kr

세월호 인양 TF팀 27일 본격 가동

정부 관계자·민간인 등 23명

사고해역 조사·인양과정 검토

세월호의 인양 등 선체 처리와 관련한 기술검토를 맡을 정부 태스크포스(TF)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단장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를 24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27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TF는 사고해역의 수심·조류속도·지질조건 등의 물리적 특성 조사, 선체상태 탐사,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체 인양 가능성과 실종자 수습 가능성, 인양과정 실종자 유실·훼손 가능성과 방지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TF는 기술검토팀과 지원팀으로 이뤄졌다. 기술검토팀은 이규열 서울대 교수를 팀장으로 학계와 업계, 연구기관 등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기술검토팀의 업무를 지원할 지원팀은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해군 등의 관계자로 이뤄졌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도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실종자가족과 협의회를 열어 TF 활동과 검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향후 태스크포스의 기술검토 결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돼 세월호 인양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연합뉴스

市·道에 재난안전 전담 실·국 신설

실국장은 국가직 공무원 임명

자치단체에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실·국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 조처로, 시도에 재난안전대응체계가 구축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이 신설된다.

다만 실국장은 국민안전처와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 조항은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기구·정원 규정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연합뉴스

60세 이상 경비원 고용 때 72만원 지원

노동부 고용보험법 연내 개정

오는 2017년까지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비 근로자가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대상으로 포함돼 무료로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적 용됨에 따라 일각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2014년 기준으로 15만6천여명 중 60대 이상이 5만여명에 달한다"면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내년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타임誌 '올해 최고 발명품'에 셀카봉·3D 프린터

'서피스 프로3'·'블랙폰'·'위키펄스' 등 25개 선정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최근 선정한 '2014년도 최고의 발명품 25선'에 셀카봉, 애플워치, 3D 프린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눈에 띄는 발명품은 여행지에서 많이 보이는 셀카봉이다. 타임 인터넷판은 셀카봉이 팔이 미치지 않는 길이에서도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해 더 좋은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또 '셀카'(자가촬영)라는 말이 지난해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지난 9월 공개한 스마트 손목시계인 애플워치도 경쟁사들의 스마트워치를 제치고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혔다. 애플워치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줄여 넣으려고 했던 기존 스마트워치와는 달리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손목 위에 컴퓨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총부터 집까지 손쉽게 만들 수 있어 기대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3D 프린터도 소개됐다. 3D 프린터의 발명으로 중학생들은 물리학 수업에 쓸 경주용 차를 만들고 과학자들은 인체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타임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기계'는 공상과학과 같은 소리지만 3D 프린터 덕분에 현실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태블릿 PC '서피스 프로3', 도·감청 위험이 없는 스마트폰인 '블랙폰' 등 IT 기기와 아이스크림이나 요구르트 등을 포장하고 나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포장재 '위키펄스'도 타임 선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셀카봉으로 핸드폰 사진을 찍는 사람들.